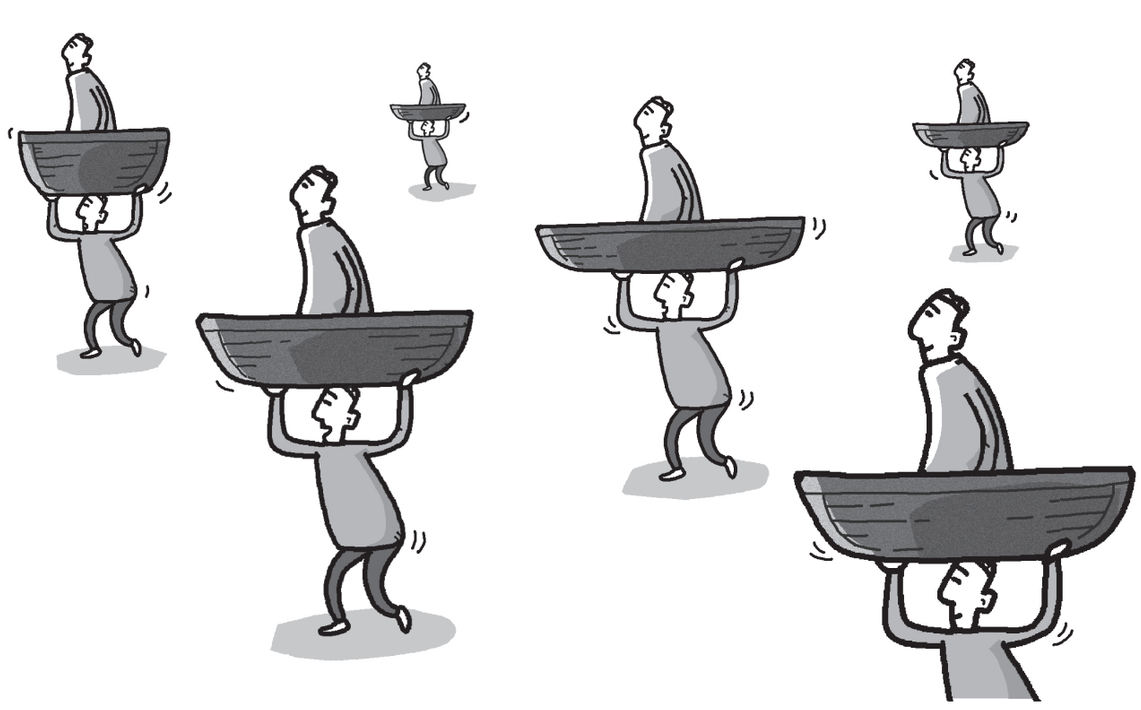

대행 스님

모든 문제들이 다 여러분의 마음 하나로 인해서 오고 가는 것입니다


그림 · 최주현

여러분이 이렇게 항상 같이 자리를 해서 한 마음으로서 굴리면서 공부를 하시려고 애를 쓰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항상 포괄적인 한마음으로서 같이같이 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본래 과거의 마음으로 산 마음이나 지금 우리 마음으로 사는 마음이나 미래에 또 우리가 살 그 마음이나 똑 그 마음 하나로 인해서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생각할 때 자기 마음과 자기 마음이 언제나 맞지 않고 항상 하나는 하나대로 겉돌고 거짓에 속고, 자기가 해 놓고 자기가 속기 때문에 항상 이게 맞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당장 오늘 저녁에 굶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편안하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거저 편안한 게 아닙니다. 그만큼 자기가 지금 시쳇말로 빽이라고 할까, 자기의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떳떳하기 때문에 당장 굶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주 튼튼한 게, 그득한 게, 자기가 떳떳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자기 마음으로 지어서 병도 가져오게 돼 있고, 자기 마음으로 지어서 병을 낫게 하게 돼 있고, 자기 마음으로 지어서 가난을 가져오게 돼 있고, 자기 마음으로 지어서 흥함을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모든 인과응보라든가 유전성이라든가 모든 문제들을, 일체 만법에 대해서 모든 것의 그 양면을, 이렇게 가져오는 것도 저렇게 가져오는 것도 다 여러분의 마음 하나로 인해서 오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때에 따라서 '아, 나를 엎드러트린 고놈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 이러는 겁니다. 즉 망하게 했다면 흥하게 할 수도 있는 놈이 고놈이고, 아프게 했다면 안 아프게, 낫게 할 수도 있는 놈이 고놈이다 이거야, 응? 고놈이 그러는데, 고놈을 고놈이라고 할 수 없으니 바로 자기는, 과거의 자기나 지금 자기나 모습만 달랐다 뿐이지 진화돼서, 창조돼서 이렇게 모습을 다르게 해 가지고 나온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묘한 법이 됐을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자불 노승이 제자를 데리고 선창가에 갔답니다. 선창가엘 갔는데 왜 갔는지 제자는 몰랐습니다. 근데 그 자불 노승은 자기가 짚고 갔던 지팡이를 물속에 넣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가 있다 하는 소리가 "스님, 왜 지금 지팡이는 물에다 넣고 계십니까, 이 뙤약볕에." 그러니까 "얘, 그런 말 마라. 지금 급하구나. 고기 잡느라고 그런다." "아니, 낚시를 넣어서 고기를 잡아도 잡힐까 말까 한데, 이 가장자리에서 지팡이를 넣고 계신데 어찌 고기를 잡겠습니까?" 하니까 그 노승이 있다 하는 소리가 "이 어리석은 놈아, 지금 이 물속에서 전체 회의를 하는데 말이야, 내 이 지팡이가 들어가지 않으면 회의를 못 해.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회의를 하느니라. 그러니 이 모자라는 놈아, 떠들지 마라." 그러고선 귀를 잡아당겨서 귓속에다 귓속말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것도 "왜 귀를 붙잡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고기들이 요런 내막을 알면 회의를 하려고 모이지를 않아. 그러니 누설이 되면 안 되니 네 귀에다 대고 이러는 거다."

그러면서 노승이 하는 소리가 "인제 급하게 배가 당도하고 짐을 실을 것이다. 그러니 짐을 싣고 갈 때 우리는 그 배를 타야 된다." 이러시거든요. "웬 배는 타십니까?"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노승은 "이놈아! 이 해안에, 지금 전 세계 해안에 물기둥이 넷이 있으면 수검이 또 넷이 있느니라. 수검이 넷이 있으면 불검이 넷이 있고, 또는 빛검이 넷이 있느니라. 감응법으로 인해서 사는 세계에는 감응으로써, 즉 말하자면 감응이라 하면 전체 무전통신기를 통해서 감응으로써 우리가 회의를 하는 법이니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바로 여기 달려 있느니라." 하면서 지팡이를 들면서 그냥 벽력같이 물을 치니까, 양편으로 물이 다 쪼개지면서 물방울이 튀거든요. 그래도 이 제자는 그것을 납득도 못 하거니와, 따라다니면서도 그걸 납득을 못 했답니다.

그러자 은사와 제자는 같이 배를 탔는데, 그 배에는 지금으로 치면 정부를 끼고 수출을 하는 그런 물건이 있었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삼(蔘)도 중국으로 많이 수출을 했고, 약재도 많이 수출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배에다가 많은 짐을 싣고 가는데 해적이 나타났더랍니다. 해적이 나타나니까 "이놈아, 이 지팡이가 아니었더라면 어떡할 뻔했느냐?" 하거든요.

그러니 그 지팡이는 뭐겠습니까? 만약에 지팡이를 지팡이로 보신다면 그것은 지팡이를 정말 못 보는 일입니다. 지팡이를 지팡이로 본다면 못 보고, 눈을 눈으로 본다면 못 보는 것이고, 손을 손으로 본다면 못 볼 것이고, 발을 발로 본다면 못 볼 것이고, 저 길을 길로 본다면 못 볼 것입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좋은 도리가, 보이지 않는 생명들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들리지 않는 세계에 모든 그 이치가 50%가 있다면 여러분의 문제는 지금 50%를 모르는 이치에서 우리가 50%를 가지고 사는 격이죠.

그래도 몰라서 있었더니 그 해적 배는 북쪽에서 오는 배고 이 상인, 즉 말하자면 물건 실은 배는 남쪽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북쪽의 배는 이 물건을 뺏어야만 살겠고, 남쪽의 배는 이것을 고스란히 가져가야만 되겠고, 그러니 그 지팡이 하나가 문제입니다. '지팡이 하나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되겠느냐'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그 지팡이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는 지수화풍으로 뭉쳐진 한 개의 승화된 바로 그 마음이라는, 한 주장자라는 지팡입니다. 그럼 '그 지팡이가 모든 것을 해결을 할 수 있다'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자기 마음으로 자기가 지어서, 자기는 미거하고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시고 부처님이 나를 구해 주시고 모든 신의 이름들이 나를 구해 주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주장자는 내 마음의 눈도 되거니와 마음의 아주 선의의 칼도 되거니와 철퇴도 되거니와 금방망이도 되거니와 바로 빛의 검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불검도 될 수 있고, 수검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검을 어떻게 쓰느냐? 우리는 그 네 가지의, 형성된 하나의 주장자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오관을 통해서 바깥의 현실과 지금 무(無)의 세계와 같이 혼합을 해서 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요 말 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한마디 하죠. 옛날에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이란 깨달은 사람이 부처님이지 그 부처님이 부처님이 아니니라. 부처님이란, 부처님한테다 절을 안 하고도 항상 절을 하고 있고, 또 계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세상 법에 어긋나지 않느니라. 남을 제도를 하지 않으면서도 제도를 전체 하느니라." 그러니 모든 것이 우리가 참, 그 마음 하나, 하나로써 그렇게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다는 점.

'왜 스님은 이렇게만 말을 하나?' 하지 마시고, 모든 거를 자기 주인공에 믿고 맡겨 놓는 데 역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빠르고 더디고 한 사람들이 몇 층으로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어떤 사람은 놓고 그냥 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하고도 놓고 간다 이거야. 어떤 사람은 자기가 탄생을 못 했어도 또 굳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 그냥 한번 툭툭 던져서 지켜보고선 놓고 간다, 또. 그러면 세 가지가 다르냐 하면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차례차례로 하는 거보다도 세 가지를 한꺼번에 굴려 가면서 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보증을 서서 집이 넘어가게 생겼대요. 그런데 주인이 빨리 와야 될 텐데 인제는 자기 집이 넘어가게 됐으니 남편한테도 쫓겨나게 생겼거든요. 그 사람이 깨달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얘깁니다. 아, 그래서 아주 갑자기 급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공!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아예 당신이 알아서 해. 인제는 마지막 끝이야, 아주.' 이러고 '그저 12시 안으로만 왔으면….' 했답니다. 그랬더니 12시 안으로 착 들어서더랍니다. 자기가 먼 데로 떠나려고 했는데 가다가 중간에 생각나기를, 차를 타고 가는데 '내가 이러면 죄를 받아서 우리 식구들하고 전부 죽지.' 하는 생각이 무뜩 들면서 다시 돌아왔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집

☞ 22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가 아니다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10,000원 | A5 | 287쪽 (택배비 별도)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